

## 강남한방병원 오늘부터 진료 시작 오는 11일 정식 개원 예정



본교 한의과대학 부속 강남한방병원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방병원은 대지 3백19평에 지하 2층 지상 8층규모의 건물로 약사 20여명을 봉안할 법당, 세미나실, 진료실 등 20여개의 병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남한방병원은 한·양방 협진, 한·양방 종합검진센터, 수도권 지역 3백여동문 한의원과 연계 체계 구축 등으로 병원을 특성화시킬 계획이다.

# 2000학년도 모집단위 '광역화' 확정 학부(과) 아닌 단과대별로 모집 ... 일부학과 신설·이동

모집단위광역화를 중심으로 하는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었다. 이번 모집안에서는 사범대를 제외한 모집단위광역화 정책에 따라 이전까지 학과(부)별로 신입생을 모집해 오던 것을 단과대학별로 한다. 서울캠의 경우 전체 정원은 예년과 같은 2천9백40명으로 증감이 없으나 정원내에서 과(학부)별, 대학별 변동이 있다. 문과대학과 공과대학이 10명, 이과대학이 20명이 감원된 반면 법과대학과 연극·영상학부가 각각 20명씩 증원되었다. 또한 2000학

년도부터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이 신설되며, 북한학과가 주간으로 전환된다. 체육특기자의 경우, 예전과 달리 체육교육과 이외의 과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학, 학과(부) 및 전공, 소속이 변경이 된 것도 많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대학→경원대학 △독어독문학과→독일학과 △경제·통상학부→국제통상학부 △응용생물학전공→생물학전공 △화학공학부→기계·식품·화학공학부 △기계·식품·화학공학부→기계·식품·화학공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

공학전공→컴퓨터 공학전공 △영화·TV전공→영화·영상전공 △북한학과→사회과학부 북한학전공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생명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자연과학부 생물학전공 △기계·식품·화학공학부 식품공학전공, 생명자원과학부 식품공학전공. 또한 불교대학원의 장례지도학과가 신설돼 장묘문화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캠의 경우, 지방대학으로서의 차별성부각을 입시전략으로 삼고 있다. 모집단위는 관공대학

이 신설됨에 따라 관공래저개발전공이 신설되고, 종전의 미술학부의 경우 불교조각·불교시각·디자인 전공이 증설된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불 때 특차전형의 인원이 1천명으로 늘어났다. 특차 및 특별전형은 전·후반기로 나눠 △외국어우수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실업계 고교 동일 전공자 △학교장 추천 △선·효행자 등에 한해서 정원을 대폭 증원했다. 한편 올 2000학년도부터 신입생 장학제도도 달라진다.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최우선발자에 한

해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그 자격이 최우선발자에게로 확대되었고, 명진장학의 경우 전체수석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캠퍼스별로 4년간 전액 지급한다. 21세기 장학은 수능 인문·자연계열 전국 상위 3.5%에 한해서 대학 2년간 전액 지급되며, 이외에도 입학후 실시하는 모의토익성적 상위 20명에게는 해외단기연수가, 특차 후반기 및 정식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모집단위별 정원의 상위 2%이내에 대학 1학기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돼 있다. 장학제도와 관련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단기 인문모집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신입생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절적으로나 양적으로 타대학을 앞서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 지면안내

- DDR, 그 현장을 가다 7면
- 서울캠 학생회후보 후보자 정리 2면
- 경주캠 학생식당 설문조사 결과 3면
- 일본 핵무장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5면



춤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들어 온 DDR(Dance Dance Revolution)이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다른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는 DDR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하루에 한 번'

윤 청 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옛날에 도(道)가 있고, 덕(德)이 넓기로 소문난 한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젊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스님은 전국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젊은 수행자들에게 별다른 가르침을 내려주지 않았다. 한달, 석달, 일년이 지나고 삼년이 지나도록 스님은 그저 그전에 해왔던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올리고, 참선하고, 밥먹고, 차마시고,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일상사 그대로를 계속해서 나갈 뿐, 특별히 무슨 법문을 들려주는 일도 없었고, 특별히 어떤 가르침을 내려주는 일도 없었다.

그러자 이 스님으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들었던 젊은 수행자들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젊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님께 마지막 답안을 하기로 하였다.

"노스님, 저희들은 노스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자 여기까지 찾아왔고, 그동안 열심히 시종을 들었습니다. 하오나 노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다 할 가르침을 내리시지 않으시니 참으로 서운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대체 무엇을 배우고 싶다는 거냐?"

"예,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참다운 수행자 노릇을 잘 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노스님은 차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명칭한 것들아, 그걸 뭘 가르치고 배우고 할게 있겠느냐. 하루에 한번씩 스스로 저머리통만 만져보면 될 것이다"

가르침은 오직 그 한마디 뿐이었다. 하루에 한번씩 스스로 자기의 머리통만 만져보라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루에 한번씩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한번 스스로를 '나'를 확인하라'. 이 가을에 한번쯤 되새겨 볼 가르침이 아닐까.

# 오녹원 이사장 만장일치로 재추대

## 이사 대부분 유임 ... 학내외 우려 목소리도



오녹원 이사장

지난달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백64회 법인 이사회에서 현 오녹원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제19대 동국학원 이사장에 재추

대됐다. 또한 현 이사진 중 안채란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가 유임됐으며, 권노갑 총동창회장이 새 이사로 선출됐다. 이날 유임이 결정된 이사는 오녹원 이사장을 비롯해 벽파스님, 현성스님, 고산스님, 법장스님, 도원스님, 정대스님, 송석구총장, 서돈각, 류주형, 황명수 이사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 1일자로 해임된 현근스님의 후임이사 선임문제는 12월 1일 이전에 보선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이사선출에 대해

학내외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내 일부 총회위원의 종책모임인 일여회와 정립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중원종법을 무시한채 선출된 승려이사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과 박사과정 3학기)와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단이 어지러운 사이에 학교법인 동국학원 법인이사회는 자신들을 다시 법인이사들로 선임하

고 오녹원 현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오녹원 이사장의 재임은 안정적인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것으로, 학교가 종단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총회일부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서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나 중앙총회로부터 이사선임과 관련된 공문이나 통보를 받은 일이 전혀 없고,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선임을 마무리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모든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cowsow@cakra.dongguk.ac.kr



호소 ... 국보법 폐지 요구가 높은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구 투쟁본부의 거리선전전이 지난 29일 녹두사거리에서 진행됐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 총학 이승복·김태광조 출마 총여·총대도 단독후보 등록

서울캠 2000학년도 학생회 건설을 위한 각 단위 학생회 선거가 지난 주 등록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련기사 2면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의 후보자 등록마감결과 4개 중앙학생자치기구 중 졸업준비위원회를 제외한 3개단위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후보자, 모토,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이승복(반도체과3)·김태광(국교3), '웃으며 맞이하는 자주의 새아침! 일민이천하우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정상화·등록금 인상저지·지주적 학생회의 대중화·교육환경개선·법동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축전 진행 △총여학생회=김박선경(행정

3)·한이윤영(물리2), '틈새에서 시작한 제3의 몸짓·신나는 상상 Upgrade', 문화제 개최·반성폭력운동 전개·취업가이드 발간·여성학회 강화·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총대의원회=채진석(경제3), '일민이천이 만들어내는 새천년 동막! 그 씨앗이 2백40대 의원에 있다!', 학생회 강화 이바지·적극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전개 등이다. 이번 학생회 선거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중앙자치기구의 1차유세는 오는 5일 오후 1시 도서관앞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최진범(영문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선거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캠 창업보육센터 지난달 27일 개소

## 교수·학생 중심의 15개 업체 입주



지난달 27일 경주캠 창업보육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황윤식·회계학, 이하 창업센터) 개소식이 지난달 27일 송석구 총장과 이원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3백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연건평 3백 58평 규모에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창업센터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올 1월부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에 경주시로부터 창업운영비를 지원 받아 지난 10월 입주업체

를 선정, 개소식을 가졌다.

문화, 정보통신, 생물산업분야로 나눠 4차례에 걸친 심사결과 선정된 입주업체 가운데는 △정보사랑 △DAP △토한정보시스템 등의 교수중심의 창업센터와 △드림 스튜디오 △어드벤처 등의 학생창업도 있다. 선정된 입주업체는 창업센터에서의 일정기간 연수 후, 앞으로 경주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개발하고자 계획된 경주 문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게 된다.

이번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과의 산학협동체계의 구축은 물론 지방대학으로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혜 기자

choya@mail.dongguk.ac.kr

수습기자  
모집광고

# 동대신문을 이끌어갈 여러분을 찾습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 수습기자 모집안내

- ▶ 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0명
-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 기자
-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 원서마감 : 1차 - 11월 11일(목) 오후 5시  
2차 - 11월 24일(수) 오후 5시
-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면접일시 및 장소 : 1차 - 11월 11일(목) 오후 6시  
2차 - 11월 24일(수)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 동연·5개 단과대 선거 후보자 등록 마쳐

## 후보 등록률 저조... 동연 투표는 오는 5일 진행

동아리 연합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달 29일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전체 12개 단과대 중 5개 단과대만이 후보등록을 마쳐 극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또한 모두 단독후보만이 등록해 학생회 건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미등록 단과대 선거는 내년 3월 치러진다.

동아리 연합회 선거는 오는 5일 치러지며 후보자, 모토,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생지대** △후보=홍균희(산자3)·고동희(식자2) △모토=자주와 달려가는 자주시대 △공약=학생회 체계 확립, 등록금 인상저지, 국보법 철폐운동 전개.

**문과대** △후보=신석철(국문2)·송창호(인문2) △모토=자주의 시대! 일천 명진으로 어우러지는 새천년! △공약=문과대 단독 새내기 새로배출터 실시, 문과대 발전위원회(화) 설치, 새내기·문과대·과·학부학생회 3자연대고리 창출, 통일운동과 국보법 철폐운동 전개, 소모임 지원과 육성, 인문학 토론회 개최.

**경상대** △후보=김덕기(경통2) △모토=우리이제 1천2백의 나무에서 하나의 숲으로! △공약=학생회 체계 확립,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의 공공성 확보, 대중적인 학생회 건설, 국보법 철폐운동 전개.

**동아리연합회** △후보=한세영(전기공3, 사우회 회장, 학술1분과장)·박해진(경영3, 민중사랑 회장) △모토=생산의 정치를 향한 합찬도약! △공약=동아리 지원금 인상,

**사범대** △후보=임은희(수교3)·김홍민(지교3) △모토=새천년 길라잡이의 터 우리시대 학생회를 건/설/하/나 △공약=천백학림의 소망 실현, 뜻대있는 예비교사의 터로 만들겠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청년의 눈으로 조국사랑의 터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함께 숨쉬는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터로 만들겠습니다.

**야간간좌** △후보=유승우(아시아3)·임형준(중문3) △모토=새 천년을 향한 무한질주! 미래나 하나됨



오는 5일 동연투표를 시작으로 오일부터 중앙기구와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으로 출발하자! △공약=등록금 인상 저지, 동국관식당 문제개선, 야총 도서관 개선을 위한 자치위원회

#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접수 활발

혜원스님·유광옥씨등 기부 잇달아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음 선원의 주지인 혜원스님이 지난달 14일에 있었던 불교종합병원착공식에서 1억원을, 유광옥 명예위원이 5천만원을 기부했다. 한마음 선원의 경우, 지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총 2억 4천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양민자(여, 42세) 신도가 지난달 12일 경주 병원 해부학교실에 시신 기증을 약속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신기증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의학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 제12회 한·일 국제학술회의 열려

내일(2일)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서

제12회 한·일 국제학술교류회의가 내일(2일) 개교90주년 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일 불교의례의 비교연구'라는 주제하에 본교와 일본 대정대학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오출세(경주캠 국문학)교수의 '불교의례의 토착화와 민간문예의 교섭양상' △김홍우(연극영화학)교수의 '한국 불교의례의 부대행사' △김호성(인도철학)교수의 '인도불교와 한국불교의 의례비교' 등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학생처, 무량사로 명찰순례 떠나

서산마애삼존불 관람도 병행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복지실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부여 무량사로 명찰순례를 떠난다. 45명의 교수, 학생,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무량사 방문뿐만 아니라 서산마애삼존불 관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총여, 자기개발워크숍 개최

여대생 취업난 해결 모색

총여학생회(회장=서신경화·철학4)는 오늘(1일)부터 5일간 자기개발워크숍을 진행한다. '낯선 현실에서 돈과 재능 끌어오기'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대생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일하는 데 대한 의미를 갖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오늘과 내일(2일) 양일간은 직업의식과 창의력 개발훈련이 오후 6시부터 연화관에서 진행되며, 또한 첫날은 무료로 MBIT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튿날에는 MBIT 적성검사 풀이를 진행한다. 3일에는 '여성과 노동'을 주제로 박종주 여성학 강사의 강연회가 오후 5시 명진관(A204)에서 열리며 4일은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트가 원흥관(E204)에서, 5일에는 여대생 취업에 대한 설명회가 원흥관(E204)에서 열린다.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가을 대동제에 이어 늦가을을 재촉하는 각종 관람...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가을 대동제에 이어 늦가을을 재촉하는 각종 관람...의 학술제가 한창 진행중이다. 신방과 학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진전시회에서 학생들이 관심있게 관람하고 있다.

# 노조, 동국가족 체육대회 개최

직원간 친목 도모 자리 마련

전국대학노동조합 본교지부(지부장=백경선, 이하 노조)는 지난달 29일 일산 실업농장에서 1백여명의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교내 직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용평팀과 정진팀으로 나뉘어 축구, 피구, 줄다리기 등의 체육행사와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직원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총학·문과대 비대위 점거 농성 풀어

## 학교당국과 문제 해결 위한 협의 계속

복지공간확보와 모집단위 광역화 문제로 그동안 각각 점거농성을 벌여왔던 총학생회(회장=김오중·불교4, 이하 총학)와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종진·사4, 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각각 농성을 풀고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보리수공간을 중심으로한 다량관 활용문제로 지난 10월 5일부터 다량관 교직원식당 점거농성을 진행했던 총학은 지난 주말 농성을

풀내고 다량관 활용방안을 학교당국과 협의중이다. 현재 양측은 보리수를 다량관 1층으로 이전하고 2층 학생식당 공간과 3층 보리수 공간을 SRC를 비롯해 정보관리실, 통신실 등으로 사용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다량관 1층 복지매장들의 공간이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발소는 중앙도서관 야외 1층으로 옮겨진다. 또한 학내의 전반적인 복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하기로 결정했다.

모집단위 광역화와 관련해 50여 일간 농성을 진행했던 문과대 비대위 또한 지난달 22일 농성을 풀고 문과대 당국과 문과대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과대내의 각 학과와 학부학생회실에 대한 복지도 대폭확충하기로 합의했다.

# '디지털시대의 한국정치...'

언론정보대학원 학술세미나 개최

본교 언론정보대학원은 오는 3일 신라호텔 영빈관 에머랄드룸에서 '디지털 시대의 한국정치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한국의 미디어 정치 △디지털 시대의 한국정치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원총, 내일부터 가을학술제 진행

## 3일에는 '21세기...' 학술토론회도 개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종·입학과 박사과정 3학기, 이하 원총)는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99대학원 가을 학술문화제를 진행한다.

각 과에서 준비한 세미나 발표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문화제는 오는 3일의 '21세기의 민족과 지식인'이라는 주제로

동국관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뿐만 아니라 영화 한마당과 가을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총의 한 관계자는 "각과에서 많은 원생들이 준비한 세미나와 각종 행사가 열리는 만큼 많은 동국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전공)에 99학년도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2. 신청기간 : 99. 11. 1(월) ~ 11. 3(수)
3. 접수처 : 희망자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4. 선발방식
  - 가. 교육부승인 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 나.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중 인성·적성 및 성적(1학년·2학기 및 2학년 1학기) 등을 참작하여 학과(전공)에서 선발한다.
5. 교직과정 이수절차
  - 가. 교직과목의 2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전공학점이 최소 42학점이상 이어야 한다.
  - 다.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의 교직기부이수영역별로 1과목이상씩 대체 교과목을 이수(9학점이상)하여야 한다.
  - 라. 상기 가. 나. 다의 취득학점이 각각 평점 80점(B+) 이상이어야 한다.
  - 마. 교과과목중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에 '4주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공업계 표시과목의 경우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도 '4주간' 이상 필하여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 교학과(☎ 2260-3380)으로 문의바랍니다.
  - \*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중 교직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복수(학위)전공 신청기간(99. 11. 1 ~ 11. 3)에 학사지원실로 신청하여야 함.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학위복수전공 신청으로 대체함.)

# 교직복수전공·부전공 이수

- 교직복수전공
  1. 공통사항
    - 1) 이수자격 : 복수(학위)전공자로 선발된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2) 이수방위 :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
    - 3)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학위복수 전공신청으로 대체함.
  2. 이수학점
    - 1) 복수전공학과 표시과목 관련 교직기부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 교과과목이수 : 주전공 교직이수시에 취득한 교과과목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차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교과과목 중 복수전공과목의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3) 비사범계 학생은 복수전공과목의 취득평점평균이 80점(B+) 이상이어야 함.
- 교직부전공
  - 1) 이수자격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 2) 신청시기 : 99. 11. 22(월) ~ 11. 26(금)
  - 3) 신청방법 : 부전공 이수 신청자에 부전공학과 주임교수 합의를 받아 사범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 4) 부전공학과 교직기부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5) 교과과목중 부전공학과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6) 비사범계 학생은 부전공학과 취득평점평균이 80점(B+) 이상이어야 함.
- 기타유의사항
  -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환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2)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여 교환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어도 주전공 교직이수과정이 교환자격증 발급요건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증 발급이 자동 취소됨.
  - 3) 교직복수 이수자격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학점에는 부족하나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부전공 이수를 자동 인정함.
  - 4)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동일학과에 신청한 자가 교직복수전공 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별도로 부전공 과목포시는 하지 않음.

# 복수전공 결정

1. 일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9. 11. 1(월) ~ 11. 3(수)
  - 나) 최종 공고 : 99. 11. 12(금) 이전에 교무처에서 공고함.
2. 복수전공시행 기본방안
  - 가) 선발인원 : 기준정원 100%내에서 결정하되, 시설여건·교수 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 나) 신청자격 : 99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자
  - 다)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 단, 제한사항 있음
  - 라) 제한사항
    - 1) 한의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 3)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3. 수용정원 초과시 선발원칙
  - 가)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 나)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학과)는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성적(F포함) 평점평균을 소수정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4. 졸업 및 논문
  - 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는 불가하고 제1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한다.
  - 나) 제2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 다)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단, 학위등록 번호는 동일함)
  - 라) 자정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과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와 입지교수와의 확인을 받은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리)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는 원칙상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직접 접수전 최종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신청 절차
  - 가)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소속 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나)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후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 다) 자정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과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와 입지교수와의 확인을 받은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리)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를 원칙상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직접 접수전 최종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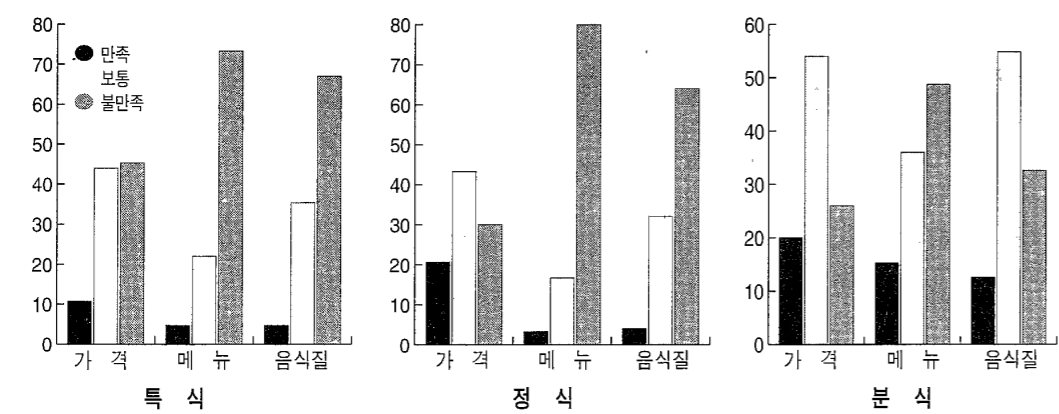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심규박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 학생회관식당, 대다수 학생 '불만'

## 학생들에 대한 신뢰성 회복·적극적 식당운영 필요



지난 3월 학생회관 식당이 공개 입찰로 LG유통에 낙찰되고, 새로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학생회관 식당을 비롯한 한내 식당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입찰 당시 LG유통이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측에 제시했던 조건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지정장·학교대표로 급식운영 자문위원의 구성, 손익계산 공개, 객관적 고객 만족도 2회 조사) △수익금 2%이상 발생 시 학생 전액 장학금 기부 또는 학교 기타 △출판지 개설 △산학 협동 프로그램(취업·재능 정보제공) △학생회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연수원

개방 등이다.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사는 지난달 28일 학생회관 식당을 이용한 학생 1백 50명을 대상으로 '학생회관 식당 및 한내 식당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회관 특식 가격 적절성: 만족(10.7%) 불만(44%) 응답없음(45.3%) △메뉴의 다양화: 만족(4.7%) 불만(73.3%) △음식의 질: 만족(4.7%) 불만(35.3%) △정식 가격 적절성: 만족(20.7%) 불만(43.3%) △음식의 다양화: 만

족(3.3%) 불만(16.7%) △음식의 질: 만족(4%) 불만(32%) 불만족(64%) △분식 가격 적절성: 만족(20%) 불만(54%) △메뉴의 다양화: 만족(15.3%) 불만(38%) 불만족(48.7%) △음식의 질: 만족(12.6%) 불만(54.8%) 불만족(32.6%) 등이며 기타 응답으로는 배식구 확장, 밀반찬 다양화, 위생 환경개선, 찬물공급 등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관 측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도 곧 실시할 계획"이라 말하며 "제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다르지만 가능한 학생들의 입맛에

맞고, 가격 또한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 김중훈(사복4)위원장은 "LG유통 측에서 공개입찰 설명회 당시 제시한 조건도 많았고, 식당의 분위기·친절성 등을 바래 보려는 움직임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내의 다른 식당에 비해 학생회관 식당에 대한 '불만'이라는 응답을 했다. LG유통은 국내 대규모의 기업체이자 타 대학의 많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직 학생회관 식당을 인수해 운영해 온지 10여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때 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식당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본관건립기금 1억원 넘어서

## 김일영(법3)·이정목(법3)군 1백만원씩 기탁

경주캠퍼스 본관건립기금이 지난달 27일 1억원을 넘어서었다.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본관에 대해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문들을 비롯하여 재학생, 교직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모두 73건에 1억1천5백60만원인데, 법학과 3학년 재학생인 김일영군과 이정목군은 재학생의 신분으로 각각 1백

만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있다. 대외협력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지만, 경주캠퍼스의 본관 건립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므로 동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학교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오늘부터 각 단대 추계학술제 열려

인문대학(회장=박재섭·영문3)은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녹아웃 뒤 주주광장에서 '인문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1일에는 △전야제 및 길놀이·불꽃 △식전축하공연-바라달 인문인 노래자랑(인문대 노래대 하나뿐) 희망애 축하공연) △시상식 및 불꽃놀이 등이며, 행사 이틀째인 2일은 △동공음악회·중앙동맹물 불꽃·댄스 동아리 유모차 축하공연 △커피이벤트(타이타닉 게임·장기자랑) △폐회식 등이다. 자연대학(회장=박재섭·생물3)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자연과학과 진흥관에서 자연인 연합 학술제를 개최한다.

각과의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교육과=초청강연회-오예란(의동중학교 가정교과)·권보보(YMCA)강사(2일), 사할음식시연회(3일), 졸업생 환송 페스티벌(4일) △생물학과=학술세미나(2일), 바이오 심포지엄(3일), 전시회(2~4일) △생물통계학과=초청강연회(2, 3일), 학생세미나(2~4일) △화학과=불꽃놀이, 성냥불 연이 쫓겨, 올랜지 시계, 액체질소, 얼음자 오를 쪼개기, 비발렌지, 얼음자 매단을 쪼개기, 마법의 성, 도금(2~4일) △수리과학과=비발렌지, 김민경

# 회전무대

## 도피생활

○...사랑해 동문들... 요즈음 은방골에서는 이색적인 선후배 사이의 사랑(?)이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내용면, 모교고 동문회 참여를 바라는 안내문에 '학교는 안나와도 동문회는 나오자'라는 글귀와 함께 쥐잡듯 찾아온 동문회 명단공개는 불참한 학생들을 불만에 떨게 한다. 이에 숨어지내던 이 모화우 왈, "오랜 도피에 지쳐 나도 자수한 다!"

# 선착순

○...시험도 선착순으로? 지난달 26일 은방골 불교와 중앙문화 시험시간, 분반을 한다는 교수의 말에 따라 이틀만 원호관 208강의실에는 이미 타 강의실에서 분반해 온 학생들이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더우기 방학일에 다시 바쁜 강의실을 찾았으나 국악과 공연장계로 시험준비 학생들의 행이 들어오는 등 황당한 사태가 연속되었다. 이에 당황한 한 학생 왈 "시험문 위기 조성은 강의실 확보부터!"

# DDR과 함께 춤출

○...지난 주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DDR에 대한 동아리들의 열기는 대단한 가운데. 학생들은 춤에 굶주려(?) 있었는지 몸을 발판에 내던지고, 특히 다이어트 다이어트 레플루션으로 별릴 정도로 다이어트로 고민하던 여성들에게 획기적인 치료제 역할까지 한다. 이에 지나가시던 교수님 말씀 "DDR이 시험문제면 학생들 성적은 A+(!)"

# 헛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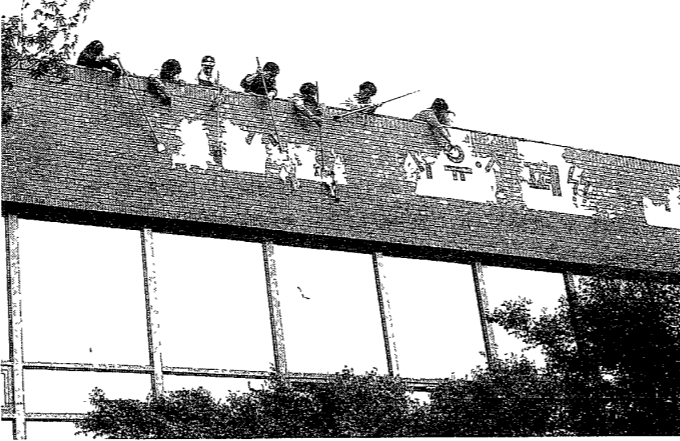
○...별거 없는데(?) 드라마 '학교'에 출연중인 발란트 서갑숙씨의 성체험수기에 대해 올라선 여부는 조사한 검찰은 큰문해 없다고 결론 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는 문화계 관계자들의 '올라선 여부는 문화계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계속 되풀이 되었던 강력한 주장과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에 따른 것이라고. 이에 서갑숙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오는 한 시민 한미다 "검찰이 뭐더니 짚은거잖아(!?)"

# 총대, '선거 및 정기총회' 개최

## 정 후보자 이강훈, 부 후보자 이치운

총대의원회(의장=이상해·회계4 이하 총대)는 오는 4일 원호관 207 강의실에서 '17대 총대의원회 선거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대는 지난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후보자는 △정 후보자: 이강훈(경영3) △부 후보자: 이치운(생물3)이며,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총대 소식이 발간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학생회 예산감사·공약감사 등 감사단 구성한 철저한 감사 △개별 복지향 개선(교통, 경제, 환경 캠페인)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해 의장은 "선거 시 후보자들의 투표유세와 총대의원회 소개와 학생회칙 제·개정 등을 인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말했다.



자보는 우리들의 무언의 의사표현, 자보 수거일과 수거자가 학생들 사이에서 규정지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암적으로 철해(?)가 하지 않을까?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한의대 동창회 장학금 전달

한의과대학 총동창회(회장=손창수)는 지난달 10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의과대학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진 총회에서는 동문들의 각종 기금 모금행사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본교에 직접 전달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3천여만원 △동창회 장학금=6백여만원(재학생 12명에게 전달) 등이다.

# Y2K문제 해결 테스트 실시

정보관리실(실장=조영석·컴퓨터4)은 오는 3일까지 Y2K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번 테스트의 대상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IT)부문의 경우 △컴퓨터 시스템(PC, SERVER 및 부속장비) △정보시스템 및 각종 S/W 등이며, 비정보시스템(Non IT) 부문의 경우 △전기설비시스템 △전자교원기 △복사기 △전화 △팩스 △보안시스템 △학과실험실습 기자재 등이다.

# 한의학연, 상해 중의대 악수진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한의학연구소(소장=최달영·한의학)는 지난달 29일 교무위원회 의실에서, 본교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한의대 교수와 본교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악수진(중국 상해 중의대 대학)교수를 초청해 '산후질환의 중의 치료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치렀다.

# 중구 100대 명의중 한명이며 상해 병원에 상부인과 과장으로 있는 악수진교수는 강연회에서 △산후혈액결빙, 변비, 두통에 대한 치료법 △중구 교유의 임신 전후유치 치료법 △중구 교유의 임신 전후유치 치료법 △중구 교유의 임신 전후유치 치료법

새로운 세기여 달려오라. 미래는 우리가 연다!

# 동국대학교 2000학년도 특수대학원신입생모집

전기(야간)

### ● 불교대학원

1.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원서접수 및 접수: 1999. 11. 11(목) ~ 11. 19(금)

3. 전형일시 및 면접: 1999. 11. 27(토) 14: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특선: 1명

6. 학비: 100만원

### ● 경영대학원

1.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원서접수 및 접수: 1999. 11. 11(목) ~ 11. 19(금)

3. 전형일시 및 면접: 1999. 11. 27(토) 14: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특선: 1명

6. 학비: 100만원

### ●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편입생)

1.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원서접수 및 접수: 1999. 11. 11(목) ~ 11. 19(금)

3. 전형일시 및 면접: 1999. 11. 27(토) 14: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특선: 1명

6. 학비: 100만원

### ● 국제정보대학원

1.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원서접수 및 접수: 1999. 11. 11(목) ~ 11. 19(금)

3. 전형일시 및 면접: 1999. 11. 27(토) 14: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특선: 1명

6. 학비: 100만원

### ● 문화예술대학원 (신입생·편입생)

1.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원서접수 및 접수: 1999. 11. 11(목) ~ 11. 19(금)

3. 전형일시 및 면접: 1999. 11. 27(토) 14: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특선: 1명

6. 학비: 100만원

### ● 교육대학원

1. 모집대상: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원서접수 및 접수: 1999. 11. 11(목) ~ 11. 19(금)

3. 전형일시 및 면접: 1999. 11. 27(토) 14: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특선: 1명

6. 학비: 100만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재를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비를 중시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위함으로써

동약로

이타심(利他心)



“담배나 한 대 피고 올까?” “좋지!” 강의가 시작하기 전 몇몇 남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강의실 밖으로 나선다. 복도나 계단에 모여 무리를 지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대학내 건물 밖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복도나 학생회실, 강의실 등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갈등은 비흡연자의 승리로 기울어 가는 듯하다. “이제 어떡하지?” “흡연실을 따로 지정하긴 하는 건가?” 흡연을 위해 모인 몇몇 학생들은 다소 불만인 듯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시도 때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와 복도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담배재, 창문밖 베란다에 쌓여있는 지저분한 담배꽂초 등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환경이 기대된다는 비흡연자의 반가운 목소리도 들린다.

사실 본교 역시 몇몇 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물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해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흡연규제에 대한 강력 방침으로 자의반 타의반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당국의 규제 대상은 흡연뿐만 아니다. “빠리리리~ 빠리리리~” 시도때도 없이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며 울려대는 이동전화는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강의실 내에서 휴대폰 소음을 없애기 위한 건물안전과 차단기 설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함께사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흡연이나 휴대폰 사용의 규제 시행을 놓고 말기말부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숙한 문화의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자국민 권익 보호는 국가의 의무

적극적 노력 통해 신뢰받는 국가로 거듭나길

외국에서나 혹은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정부가 발벗고 나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해 줄 것인가? 현재로서는 대답은 “글쎄... 잘 모르겠는 걸”이다.

자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혹은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 정부의 모습은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줌이 없게 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노근리 문제.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50여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태도는 말 그대로 썰렁하기만 했다.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나 보상요구에 변변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던데 우리 정부인 것이다. 결국 해외 언론에 의해 이 사건이 보도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자 그제서야 그 문제를 알았다는 듯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주소이다.

주한미군범죄의 경우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내 나라 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 나라 국민들이 가해자가 미군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들이

라는 이유로만 참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회의 홍문종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미군 범죄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자 26명을 포함해 모두 6백56명에 달하나, 이 중 구속자의 수는 단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1.1%만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나마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 비해 턱없이 작은 정도이다.

로버트 김 문제도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로버트 김(59, 한국명 김재관)은 미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주미 한 국대사관 직원에게 북한관련 문건을 전해 준 혐의로 ‘간첩죄’를 적용받아 3년제 복역중이며 현재 6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그간 정부가 조용히 덮어두었던 이 일은 로버트 김이 한국정부에 ‘자신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제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스파이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북한

에 대한 막대한 정보가 자신의 조국인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정보를 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순수한 조국애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다면 정부가 나서 외교적인 채널 등을 통해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민족 천추의 한이 되어 버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시원스럽지 못하다. 이 문제가 국제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되고 심지어 미 의회에서 ‘미국이 나서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및 배상을 촉구한다’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도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나서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없애 줄 수 있도록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러한 기회는 현안에 산적해 있다. 현재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노근리 문제를 비롯해 비슷한 경우를 담은 제2, 제3의 노근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 미행정협정 개정 등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언론비평

미국에 대한 몸사리기식 보도

일간지에 연일 노근리란 지명이 거론되고 50여년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심층·기획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노근리란 말조차 생소한 국민들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심각한 일이 지금에서야 이슈화되었는지 여러동질 할 뿐이다. 그나마 첫 포문을 연 언론이 국내 언론이 아니라 미국의 AP통신이었다고 그 뒤를 따라 국내언론들이 앞다퉈 대서특필했다는 것이 더더욱 황당한 일이다.

노근리를 비롯해 미군의 만행이 자행된 지역 주민들은 끊임 없이 그것을 토로해왔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미국 정부에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97년 8월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이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 당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언론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지면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그 상대가 미국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몸사리기식 보도자체가 이러한 뒷북치기를 만든 주범인 셈이다.

단편적인 내용은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여론화시키지 못한데는 다시 몸사리기식 보도자체가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 언론사가 이 제와서 자신들이 노근리에 대해 다룬적이 있다고 자랑처럼 늘어놓는 모습은 과히 보기 좋지 않다.

지난 5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말지 기자인 오연호씨는 노근리 사건이 이슈화된 것에 대해 “야구에 비유하자면 이 땅의 일부기자들이 승리투수 역할을 했으며, AP통신은 마무리 역할을 했을 뿐이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굳이 야구에 비유하자면 이 땅의 뜻있는 기자들은 열심히 던졌으나 결국,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한 패전투수이며, AP 통신은 다른 경기에 다시 출전해 승리를 따낸 용병 승리투수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우리 기성 언론들은 그 벽이 너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레도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토론회-2천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

예산안 분석으로 정책방향을 짚어본다

“예산을 보면 그 나라의 정책을 미루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소위 돈이 들기 때문에 정책이 예산편성에 반영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10월 들어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2천년도 총 92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민주노동당건설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손혁재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성두현 정책위원장, 경성대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 민족회의 김창수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발제를 맡았다. 다음은 발제내용을 2천년도 예산편성의 특성과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것이다.

2천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

성두현 2천년 예산안의 특징은 조기 재정적자 축소,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판단하에 성장위주 재정기조로의 복귀 그리고 2천년 총선을 의식한 비용지출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부터 우리는 앞으로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 실업자 대책예산을 50%이상 삭감했다는 것에서도 보이듯이 삶의 질 개선보다는 성장 제일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판단은 잘못이며, 또한 조급하게 재정적자를 줄이려하지 말아야 한다. 적자재정은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정책이며, 특히 민중들의 생존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2천년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장상환 현단계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의 과제는 민주적인 구조조정과 민주적인 구조개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재벌체제 개혁, 금융기관 정상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특히, 실업자 구제등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번 예산안으로부터 우리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외환금융위기의 원인이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되었으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2천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평가

김종해 2천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부

분이라면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5%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간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은 수급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수급인원을 낮춰잡은 근거가 경제회복으로 실업율이 낮아지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이는 적절치 못하다.

우리의 사회복지가 국제수준에 견주어 볼때 후진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아서 사회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의 30%이상 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2천년 방위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김창수 탈방정으로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에도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비는 매년 10%가량 증가해 왔다. 작년의 경우 처음으로 0.4%가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4.6%증가되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예산의 경우 무조건적인 증액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전의 성격상 70만대군을 모두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무기한 단축등으로 병사수를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공청회등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사회부

###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과 한국의 선택

논단

##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 핵무장은 안된다

### 원칙은 '핵안전지대론' ... 상황 따라 공동통제에 의한 공동핵보유로

니시무라 일본 방위청 정무차관의 핵무장 발언이 국내언론을 통해 알려진 날 한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다지 주목받지도 못한다. 며칠 지나지 않아 노근리사건·언론대책보고서·과문·교문수사관 이근안 자수 등 시국사건에 밀려 관심에서조차 멀어져 버렸다. 그러나 사실 전국민적인 관심과 민감한 반응이 적합한 우리의 대응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 군에서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일본의 핵무장기류는 늘 있어왔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대처는 이미 일관되게 준비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핵무장 욕구는 계속 이어지고 현안화 할 것이다. 원래 일본은 2차대전에 패한 후 무장해제와 전쟁포기를 선언했고 헌법에도 이를 명시했다. 물론 미국 등 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서었지만, 그러나 일본의 지도층이 응징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집단적 이기주의와 비도덕성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60년

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속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군사대국화를 노골화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군사력 강화방안이 제시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핵무장 발언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미온적 태도다. 오히려 일본의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강화를 보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없애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과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핵보유이며 특히나 핵전력을 통한 비핵 보유국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과시다. 그런 만큼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하기에는 미국의 반대가 있어 현실적 난관이 많다. 중국도 명확한 반대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국면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응방식은 핵 보유국의 비핵 보유국에 대한 핵보유 억제 전략이란 측면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핵 위협아래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은 '핵 안전지대론'을 핵문제에 관한 최종 비전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을 핵이 없는 지대로 만들자는 논리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이 핵보유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과도적 선택이 요구된다. 즉, 한국이나 일본의 핵 주권을 연동하여 '공동통제에 의한 적절한 공동핵보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의지와 행동은 강하다. 최근에는 단번에 미국에 이은 핵강국이 될 수 있는 만큼인 핵폭탄을 1만2천개나 제조할 수 있는 1백여 이르는 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관련 산업능력과 잠재력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일시에 핵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준비까지 마친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이 마당에서 한국 혼자서만 비핵 지대화를 부르짖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의 안보가 일본에 좌우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공허한 감이 많다. 그렇기에 한국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현경병 한국지식문화재단 이사장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핵무장 움직임을 노골화하면 한국의 핵 주권문제도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그 장치로서는 '동아시아·태평양 핵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서라도 한국이 참여하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동문제로서의 측면과 함께 한국의 핵 주권 보장도 중요한 의제로 삼아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남아공·이스라엘 등은 핵무기 보유로 인해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핵전력은 자국의 안보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민족적 이익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전략적 독립의 차원에서 핵 주권을 절대 가치가 있는 셈이다.

## 사설

### 법인에 바란다

개교 1백주년을 앞둔 지금 동국은 더욱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2천만 불자의 염원인 불교종합병원건립 공사를 이미 시작했고 학문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개혁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난달 19일 오복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의 새이사진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기존의 이사장 한명만을 교체하는 소수의 개편이었지만 현 동국의 모습에 비취볼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사진 구성은 바로 눈앞에 펼쳐질 새천년 동국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심에는 비판과 우려도 많고 기대와 성원 또한 적지 않다. 그것은 바로 교수, 학생,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이사들에게도 학교발전의 몫과 책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지난 몇 년간의 동국을 살펴 보았을때 학교발전에 대한 법인의 역할은 많은 부분 기대해

부응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동국발전의 관건이 교육현실의 개선과 학풍 쇄신이고 이를 위한 물질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때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인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종단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동국인은 걱정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엔 새로 선출된 이사들과 법인 이사회는 좀 더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국발전의 상을 가지고 모든 동국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때만이 법인에 대한 주위의 격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보다 밝고 희망에 찬 동국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어려운 시기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본교를 세웠던 이유는 위기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함이 었다. 이러한 선각자들의 뜻이 계승되는 새천년의 동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반복되는 학내 분규, 원인은 의사소통 부재

###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 정책 논의 필요

되돌아 보면 그간 동학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들의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 당국과 학내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것이다. 물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생들의 여론이 학교당국에 의해 상당히 수렴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학생회와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대학운영위가 제안되었지만 지금은 시들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학내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학내 민주주의 실현의 기대를 모았던 '대학운영위원회', 본격적인 시험가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은 총학생회와 각각 두차례에 걸친 면담에서 논의 기구를 만들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의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음부즈맨

제도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난 92년 '동국발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등록금 문제와 공간문제 등의 현안을 다루는데 그쳤다. 학교당국의 모집단위광역화 계획으로 문과대 학생회는 천막농성에 이어 학장실 점거농성 등의 갈등을 보였었다. 지난 9월에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대학내 민주화의 기반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사실 대학은 재정문제로 인해 BK21이나 교육개발 5개년 계획 등 교육부의 방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다.

학내의 각 구성원들이 함께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학이 추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활성화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경북대는 전국 대학 최초로 교수협의회와 '학칙기구화'에 공식 합의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회를 정식기구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결정으로 학내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와 의사소



통의 민주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의 경우, 의결기구인 대학자치협의회가 이번 총장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였으며, 대자협의 위상 강화를 위해 총장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부총장 후보 1인의 선출권을 대자협이 지니는 부총장 선출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본교 대학운영위원회 건설과 관련, 총학생회 이선진(수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의견권을 가진 대학운영위원회의 건설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대신 교수, 직원, 학생, 대학원생으로 상시적인 논의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대운위 건설도 그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말해 이를 먼저 제시한 총학생회도 구체적인 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현시기 학내 구성원들은 정책논의의 대상에서 반복히 제외되고 있다. 단지 교육을 받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분규의 '불씨'가 남는다. 따라서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노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가기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 선인적인 구호차원만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kra.dongguk.ac.kr

### 대학의 가야할 길

대학에 대한 역대 정권들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최근들어 대학의 위상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학은 과거 학문의 상아탑으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그들만이 가지는 문화로 인해 주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과거 8·90년대에 남발되었던 대학의 인.허가로 인해 이제 일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도 못채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워진 대학정책의 폐해를 학생과 대학관계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 대학의 문제점이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학생들의 성향변화도 대학에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었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나 사회를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불

교로 이어진 학생들의 이기적 성향, 전체적 공감문화의 소멸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행한 무분별한 대학 증설 정책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위상 추락이나 도산의 후유증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다. 대학이 지닌 교육적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적 기능도 무시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인사가 본인의 사회 경제적 이미지 향상의 수단으로 대학을 설립하였다면, 교육적 투자가 제대로 될리 없고 결국 그 폐해는 사회가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입시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본교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 요강을 확정할 상태에 있다. 따라서, 대학에 자기 인생을 맡기려는 교육 수요자들을 위해 정부 당국자들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연재소설 <6>

# 계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계론의 필통이 타의에 의해 공개된 것과 계론이 떠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입시라는 관문을 거쳐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일부, 그냥 지역 바닥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그리고 몇 가지 사유 중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을 포기해야되는, 진학이라는 다음 단계와의 연결은 그리와 대책이 없는 아이들이 대어섯 명이 되었다.

계론은 그 대어섯 중의 하나였다. 도시 학교로 진학이 결정된 아이들- 소위 말해 그까지 입학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이 음악 공책처럼 선이 죽죽 그어진 노트에 알파벳을 그리

느라 정신이 팔렸던 6학년의 마지막 계절, 분위기로 사람을 때려잡는, 감격이란 이름의 인위적 총정이 넘치는 졸업식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시간을 죽이며 한 시대의 마감 앞에 놓여 있었다. 저마다 낯설고 새로운 세상에 던져지는 두려움을 위하여 혼신을 으깨며 계론의 필통을 공개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도덕심이 작동하기에는 우리들이 가진 자양이 너무 부실했다. 못한 것들이 잘난 것을 향해 칼질하려고 몸치는 힘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강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향해 공격하는 방식이 무시하는 것이라면 시시한 것들이 강한 것을 향해 겨누는 화살에는 저마다 날을 버린 창끝을 준비하는 것이다. 총 한방이면 끝날 싸움인줄 모르고 원시인은 밤낮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무술을 연마한답시고 땀을 흘린다.

**그의 부재 중에 그의 서랍 속에는 변태를 끝낸 파충류의 허물처럼 필통은 그냥 얌전히 누워 있었다.**



실제에서 나타날 수 없다. 연출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피투성이가 된 의인이 비틀대며 총을 들고 서 있으면 악인은 썩 웃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다. 그리고 묘한 표정이 클로즈업되며 죽는다. 권선징악. 끝.

“어이 반종 어디갔노?”  
언제쯤인가 아이노꾸라는 말과 반종이란 말이 계론을 향한 대명사로 번갈아가며 쓰이기 시작했다.

“몰라, 책보는 있는데 둘째 시간부터 안 보인다.”  
“그래에? 찬쓰다. 글마 필통 뒤미보자. 도대체 뭐가 들었노?”

“넌들 우째 알겠노?”  
바닥에 흘린 설탕 덩어리에 물러드는 개미떼처럼 순식간에 아이들이 계론의 책상 주변에 뿔뿔해졌다.  
“용수 너는 북도에서 망종 바라.”

눈빛이 유난히 예리하게 빛나는 용수에게는 망종은 입무가 부여되었다. 덕태의 진두 지휘로 작전이 개시되었다. 아이들이 계론의 책상 주위를 둘러싸서 찌릿대처럼 겁겹이 울타리를 만들었다. 덕태는 그 가운데서 몰속에 잠수해서 유물을 건져올리는 잠수부처럼 계론의 책상 서랍에 손을 넣어 휘저었다.

그의 필통은 견고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의 부재 중에 그의 서랍 속에는 변태를 끝낸 파충류의 허물처럼 필통은 그냥 얌전히 누워 있었다. 잠시 손을 휘저던 덕태가 계론의 필통을 꺼내서 쳐다보고 흔들었다. 딸그락거리는 양철필통 소리가 숨죽이는 주위의 정적을 희롱하려는 듯이 유난히 영롱했다.

“찌기(빨리) 열려라, 찌기!”  
“뭐가 들어있노, 뭐가?”  
“틀림없이 구슬만한 공명이가 있을꺼다.”  
“이아다 총알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노꾸네 아버지가 군인이었다 안카드나. 코란 미국 군인 말이다.”  
“덕태야, 뭐하노? 찌기 안열고.”

## 달하나 천강에 오리교육

매년 가을이 오면, 고등학교나 대학입시를 앞둔 입시생과 학부모는 항시 마음이 바쁘진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올해의 가을도 어김없이 예외가 아니다. 입시를 앞둔 졸업반 학생은 잡이라는 생리적 요구도 억제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몇몇의 힘까지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입시생의 학부모도 삼전 모시듯 입시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입시철을 맞을 때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몇 달 전에 가까이 지내는 필자의 한 친구가 우리나라 교육은 '오리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열변을 토하던 일이 생각난다. 사실 오리라는 동물은 조류의 일종이면서도 물에서도 잘 뛰어 놀고 물과 물 속에서도 먹이를 구하는데 능숙한 놈이다. 그러니까 오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물 어디에서나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훌륭한 동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대부분의 새들보다 빨리 날수 없으며 땅에서는 물짐승에 따를 수 없고 어떤 물고기보다 물속을 더 빨리 달릴수 없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 동물이 바로 오리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오리와 같은 다방면의 재주를 두루 가지고 있는 학생을 최선의 목표로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학도 잘 해야하고 수학도 뛰어나야 하며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학생들이다. 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학생을 지도할 때 '너는 수학을 모자란다' 또는 '영어가 남보다 뒤떨어진다'고 말씀해야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비극에 다름 아니다. 한 과목이라도 취약한 분야가 있으면 수험생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할 수 없음이 보편적 현실이다. 수학에는 남다른 재주가 있는데 영어에 취약하다면, 우리의 교육여건에서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아니다. 이는 마치 물고래가 물에서 달리지 못하고 사자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열등한 동물로 치부되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인간 개인의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지식 기반사회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는 한 가지라도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비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간형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오리와 같이 다방면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환영받을지는 의문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대학이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현상이다. 땅에서 달리지 못하는 물고래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사자를 위해 대학들이 문호를 더욱 넓히기를 기대한다.

이시영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 차가운 '공장'에서 예술이 살아숨신다

### 예술과 삶의 공존시도 ... 퍼포먼스·탐쌍기 등 다채로운 행사

경주캠 미술과 이색 졸업전시회

이 마련되며, 이 자리는 보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누드와 생명체'라는 작품은 누드로 우리의 억압된 본능의 표출을 나타내는 동시에 혼돈의 모습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것을 다른 세계를 향한 선망으로 이미지화했다. 한편 '기다림에 대하여'라는 작품에서는 항상 상상하고 꿈꾸는 무엇인가를 위해 나아갈 수 밖에 없는 한 인간의 어떤 기대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녹아 있다. 그리고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과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을 시간의 변화와 함께 단란함과 부드러운 조화를 통해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이번 전시 '기억에서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시관이 바로 '가동중인 공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화단으로부터 병기침이나 공장 폐건물 또는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특색적인 장소를 이용해 많은 전시가 기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장'은 거대한 현대사회의 부속물이고 거기에서 느끼는 대중들의 감성과 더불어

삶과 예술의 공존은 사회와의 또다른 공존의 실마리를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선한 의도는 일반 전시장안의 박제화된 예술품에서 벗어나 대중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살아있는 전시'로서의 모습을 띄게 한다.

이것은 20세기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모든 예술장르가 서로 뒤섞이고, 융화되고 공존하면서 표현되어지는 흐름속에 '탈장르화'를 꾀하고, 예술품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반 기성품과의 융화모색은 예술과 삶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의 도시라 일컬어지고 있는 경주에서도 기성품과 주류의 문화만 남아 있을뿐 시대에 당당히 도전하는 비주류의 문화들은 좀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졸업작품전은 그 틀을 깨고 예술과 삶의 구분이 없어진 삶의 열린공간으로 걸어가는 전시로서, 또다른 문화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경주캠 미술학과 졸업전시회가 지난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살아있는 전시'를 위해 인근 공장에서 열리고 있다.

"기계와 상품이 공존하는 '공장'이라는 차가운 공간속에서도 예술은 살아 숨쉬고 있다"

경주캠 미술학과(서양화전공)의 '제18회 졸업작품전'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경주시 오봉초등학교 앞의 한 공장에서 펼쳐진다.

전시회 기간중 △퍼포먼스-졸업생들의 행위예술 △영화상영-예술작품 24여편 △어린이 미술교실-다양하고 실천적인 미술경험 △12지신상 판화 제작-관객 자신의 띠동물 제작 △타일벽화-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재조명 △탐쌍기-작가와 함께 가지는 참여마당 등의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

본교와 지대대학인 북경대가 번갈아 주최하는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경대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학술회의에 본교 송석구(철학) 총장을 비롯 200여명의 안교 교수들이 참여해 모두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번 학술회의의 기초 발제문인 송석구 교수의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문제'를 요약해 실는다.

#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문제

는 '탈근대(post-modern)'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근대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현대는 이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개념이고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개념이다.

이제 문화의 충돌양상이 근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협상(negotiation)'과 이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다. 문화는 본래 무한한 융통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어 끊임없이 다른 문화와 교류를 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 2. 19세기말의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관계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문제를 다룸에 있어 고금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금관계의 문제는 주로 연속과 변혁의 문제였고 변혁이라고는 하지만 타고개제(托古改制)와 같은 개량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 즉 전통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차이는 늘 존재했었다.

근대시기로 접어들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 사회질서와 동양의 국제질서에 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19세기 말엽의 근대화론에는 전통문화의 연속을 강조하는 것과 전통과 근대화의 단절관계를 강조하는 근대화론의 두가지 형태가 존재했다.

한국이나 중국은 서구 열강의 세력확장에 대부분 근대화론 또는 반제국주의론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같은 이념적 대립은 정파적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무수한 정변 속에서 끝내는 식

민이나 반식민지로 전락해 갔다. 전통과 근대화의 긴장은 곧 전통문화와 서양문화의 충돌을 의미하였으며 그 충돌의 중심에 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통과 근대화의 관계문제는 동아시아국이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였으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따라 향후 삼국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 3. 20세기말의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 협상의 전략

이제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세계건설이라는 미래가치를 포함한다. 단순한 근대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적 근대화가 문제이다. 여기에는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고, 평화의 보장도 중요하며, 도덕성의 확립도 전제되어야 한다. 계층간·지역간·국가간의 평등이 이루어져 모든 인류가 항상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계건설을 위해서도 상충하는 문화들간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비드 홀(David Hall)교수는 '씨앗과 부스러기 이론(theory seeds and scraps)'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문화현태에는 주류와 주변부가 있는데, 문화의 주변부에는 보통 사람들이 별 관심을 주지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싸이 나지 않은 씨앗이나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부스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주류사상 내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홀 교수는 이러한 것들의 개념들과 이론들을 발견하는 것을 일종의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서양의 철학을 비교할 때 양쪽의 주류사상만 비교하면 서로 너무 상이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부, 또는 그 밑에 있는 씨앗과 부스러기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맺음말

요점을 정리하자면, 전통문화라는 개념에는 고정된 실체 같은 것은 없고 현대성 개념 또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문제는 19세기의 단편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관계문제와는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화와 현대화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게 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모색하지는 것이다. 또한 협상전략을 모색할 때는 모든 문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전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와 열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이것은 문화간의 갈등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문화를 효율성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일종의 상대적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충돌하는 문화간의 협상은 이러한 보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기획부

# 매체비평

-연극편

## 철안뚫다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공사현장에 만들어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본사기자로

뚫다를 소재로 한 ‘철안뚫다’는 인간복제의 문제를 SF적 설정과 만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다.

흔히 요즘을 ‘이벤트 시대’라고 부를만큼 남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소위 깜짝쇼를 많이 벌인다. 물론 이런 이벤트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 생명력이란 일순간의 신선함과

충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 서울연극제 국내초청작중 하나였던 ‘철안뚫다’는 다분히 이런 이벤트적 속성을 가진 연극이었다고 생각한다. 흥미와 관심유발이라는 측면에선 일단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끝맺음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철안뚫다’는 관객들에게 많은 기대심리를 조장했는데, 우선 연출가이자 작가인 조광화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연기자들, 그리고 극단 ‘유 씨어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적 분위기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남자충동’으로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었던 조광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출가와 작가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을 통해 그의 진정한 위치를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신화를 잘도 요리하는 것을보며 조광화는 ‘뚫다’라는 다양한 인물이자 장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을 내세워 동양인들의 신화를 기본적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화두이자 때로는 남용으로 식상해져 버린 인간복제의 문제가 사건을 이끌어 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 작가로서의 그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의미망의 확보라는 목적이라 SF적 상황설정과 만화적 상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어쩌면 연극이라는 편견 아닌 편견적 특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전개는 충분히 신선함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연출가로서의 조광화는 너무도 자신의 상상력을 믿었고,

고집하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연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방향으로 설정한 소품들과 상황은 여전히 그 연극적 한계를 실감케 만들었고, 더욱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첨단과학기술에 너무도 익숙한 관객들을 눈속임하기에는 그 여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자신의 상상력을 이미 뛰어넘고 있는 관객들에 대한 과소평가인가? 출발에서부터 도심 한 복판에서 그것도 공사건설현장에서 만들어진 무대라는 특성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이벤트를 제공했다. 회합의 야외무대를 그리던 은근한 기대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야외 무대에 적합하도록 훈련되지 못한 배우들의 발성은 마이크를 통해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만을 전달해 주었고, 특히 스타시스

템을 이용해 효과를 보고자 했던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실상가상으로 혹독한 밤추위는 공연몰입에 방해가 되었고 관객의 집중을 흐트러 놓았다. 이런 악조건에 상태아래 도심속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공연시간 내내 연기자들의 목소리는 허무하게 허공으로 메아리쳐 사라져 버렸다. 공연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연기자와 스태프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대위에 녹아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하던 유인촌의 인사말과 연기자 모두 양쪽으로 늘어서서 인사를 하던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느꼈던 쓸쓸함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이태영 연극영화과 석사과정 1학기

# “DDR에 몸을 맡겨봐” 대학가 춤바람 강타

## 스트레스 해소는 기본 “나도 연예인”

### 시간·공간 여유없는 젊은층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잡아

지 난해 어느 잡지사 기사가 일본에 갔을 때 오락실 앞에서 춤추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고 “일본이야 워낙 피짜가 많으니까 길거리에서 춤춰도 정죄한 줄 모르지만 한국사람들은 저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 잡지사 기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국에도 그야말로 ‘춤의 혁명’ ‘춤바람’이 오락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0대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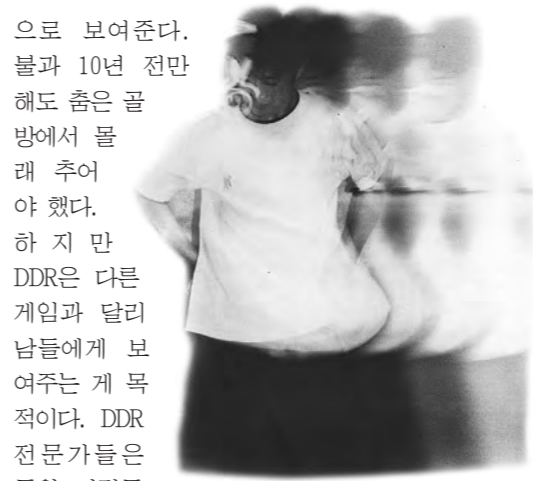
소년은 물론이고 네티어를 좋아하는 직장인까지 오락실계 위에 올라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화살표대로 몸을 움직이느라 정신없다. 물론 초보자들의 춤은 어설피기 짝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기계 위에서 현란하게 몸을 움직여 ‘한층’ 실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댄스 열풍을 몰고 온 것은 일본 코나미사가 제작한 오락기계 DDR(Dance Dance Revolution)이다. 음악에 맞춰 나오는 화면의 화살표에 따라 4개의 발판을 밟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일종의 댄스 자판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에 들어와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DDR 외에도 STEPPING STAGE, PUMP IT UP 등이 춤바람을 ‘조장’하고 있다. DDR동호회는 전국적으로 수십여개에 이르고 지난 9월에 열린 서울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DDR 경연대회도 치러졌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캠의 경우 후문 주변 3개의 오락실에 DDR류의 기계들이 2~4대씩 설치돼 있다. 추석을 전후로 학생들에게 선보였는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A오락실의 경우 DDR 기계 한 대가 ‘벌어들이는’ 돈은 하루 평균 20만원.

이 게임은 3백여회 정도 이용하는 셈으로 하루에 적어도 3백명 이상이 DDR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한달 전부터 DDR을 했다는 본교 서울캠 이소현(가교2)양은 “친구들과 자주 와요. 재미있잖아요”라며 “살도 빠진다”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수줍게 입을 닫는다.

이러한 DDR은 최근의 테크노 열풍과도 맞물린다. 테크노는 그것이 가진 차갑고 기계적이며 사이버틱한 분위기가 세기말 정서와 맞아떨어지면서 불을 일으키고 있다. DDR과 테크노는 둘다 기계를 매개로 유사한 박자와 멜로디를 반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테크노의 일명 ‘도리도리춤’에서 볼 수 있듯 몸을 같은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비슷하다.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젊은이들은 기계적 리듬에 익숙하다. DDR은 오락실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기존 정신활동에 그친 컴퓨터 오락과 달리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몸의 격렬한 사용은 단순한 재미에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라는 효과가 불려일으킨다. 또한 시간적 여유, 공간의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DDR은 만족을 준다. 한편 DDR은 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춤은 골방에서 볼래 추어야 했다. 하지만 DDR은 다른 게임과 달리 게임과 달리 남들에게 보여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DDR 전문가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멋진 기술, 이틀데만 발 대신 손을 이용한다든가, 머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초보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문화평론가 이재현씨는 “춤을 불건전하게 생각하도록 교육받은 어른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DDR은 청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놀이문화에 대한 대안없이 젊은이들이 DDR에만 열중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화평론가 홍성태씨는 “청소년들이 DDR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어찌보면 가련한 일이다.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청소년들이 DDR에 열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DDR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도 몇천명이 DDR 홈페이지를 조회한다. 요즘 가요순위 1, 2위를 앞다투는 최신가요가 DDR용으로 벌써 선보이는 등 비전업이 눈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DDR 전용체인점이 곳곳에 생겨 젊은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DDR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일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과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혁혁대는 모습은 안쓰러워 보인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으로 보여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춤은 골방에서 볼래 추어야 했다.

# 자은소식

## 학교안에서

영화 상영회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오늘부터 3일까지 ‘큐브’ 등 최신 개봉영화를 비롯 ‘핑’ 등 잘 알려진 일본영화를 상영한다. 상영작품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러브레터 12:30~2:30	사육 12:00~2:00	필로우북 12:20~2:20
링1 3:00~4:30	침자는 남자 2:30~4:30	동경일화 2:30~4:30
링2 5:00~6:30	가메리3 5:00~7:00	큐브 5:00~7:00
큐브 7:00~9:00	사무라이 픽션 7:30~9:30	터미네이터2 7:00~9:30

## 동국청소년 영상제

서울캠 연극영화부 주최로 4회 청소년 영상제가 열린다. 4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루 4회에 걸쳐 40여편을 재학생들에게도 공개한다. 오늘(1일)부터 4일까지 서울캠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 이제, 약력을 시간입니다

민속극연구회 탈의 24회 정기공연. 제목처럼 기발하고 풍자적인 마당극, 대학문화, 여성문제,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낸다. 내일(2일) 오후 6시, 서울캠 불상앞에서.

## 99기를 문학주간

서울캠 동아리 시와 사랑의 한술밥 ‘동국문학회’의 41회 정기 발표회. 문집발간, 시낭송회, 시극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시, 소설 전시회 =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캠 불상앞에서. 문학의 밤 행사 = 5일 오후 7시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 동국음악회 가을 콘서트

경주캠 동국음악회에서 제 38회 가을 콘서트를 개최한다. 20세기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우리의 열정을 다양한 곡에 표현했다고. 깊어가는 가을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환영. 오는 2일 저녁 6시 경주캠 소강당 1에서.

## 장형석(You-Loss 회장)군에게 듣는 춤이야기

# 좀더 ‘빠르게’ ‘쇼킹하게’ ... 춤은 멈추지 않는다



본사기자로

“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며 춤을 추는 순간 만큼은 일상의 잡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순간이다.”

계급 해줘요. 제가 춤을 추는 이유도 내 모든걸 맡겨도 좋을 만큼 그것에 매료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요즘 경주캠에서는 빈 강의실에서 음악을 켜놓고 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현재 경주캠 댄스동아리 ‘You-Loss’ 회장 장형석군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춤에 대해 물어보았다. “예전에는 하나의 장르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여러가지 스타일을 혼합해서 추기를 많이 해요. 즉 혼합이면 힙합, 펑키, 펑키, 하나의 장르만 연수했어야 했지만 사람들의 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더 고난이도적인 것을 보려 함에 따라 여러 장르를 접목

시키죠.” 즉, “힙합에 펑키나 웨이브들이 접목되어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에게 있어서 춤은 그의 개성에 내재된 능력을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춤 자체를 즐기고 여럿이서 어울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춤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그와 어긋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과격하지 않으면 시시해하고 쇼킹하지 않으면 보려고도 하지 않는거죠. 하지만 춤이란 보고 판단해서는 안돼요. 직접 배우고 춤을 느끼면서 이해를 해야 해요.” 춤이 대중매체나 주위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관객은 동작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볼거리로 여기는 실정이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서인지 빠른 템포의 음악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비트가 빠르고 동작에

힘이 있는 펑키나 패스트 힙합, 과격한 스타일의 브레이크는 현재 제일 선호하고 있는 춤들이에요.”라며 빠른 템포에 춤동작을 맞추는 그들의 흥을 비추었다. “이제는 춤만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와 조명등이 어우러져야 더 수준급 있는 것으로 느끼고 관객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수준도 달라졌고, 그만큼 옛날에 비해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하는 정도도 더 커지고 있어요.” 신세대들의 표현은 더 과격해지고 있으며 대학이라는 공간도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발현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수준향상으로 다양하고 대중적이면서도 좀더 새롭고 복잡한 춤이 더욱더 선보이는 추세이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 메아리

## 특권층의 소비

▲조선시대에도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상품이 존재했다. 육의전으로 대표되는 당시 이 상품들은 국가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돈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이들은 특권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무역 등을 통해 들여온 물건을 포함해 규정밖의 물건들을 몰래 들여다 놓고 팔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너물로도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각종 비단은 양반집 여인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반 백성들은 무명으로 겨우 맨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당시 비단이 얼마나 사치품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알마전 성공한 한 젊은 사업가가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다. 그는 전화소공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경영전략은 극히 제한된 특권층을 대상으로 비싼 것 그리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즉, 일

반인들은 살 수 없는 것들을 소개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특권층의 소비문화는 극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가을에 들어서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두 개의 상반되는 수치가 발표됐다. 노숙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것과 고급 브랜드의 판매가 2배로 뛰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거리로 나온 노

숙자가 늘어난 것을 보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급 브랜드의 판매가 늘어난 것을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같은데 정말 헛갈리는 노릇이다. ▲특권층이란 말은 다소 비틀린 감은 있지만 다시 말해 사회의 지도층 즉,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있고 돈있는 계층을 말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내 돈가지고 내가 쓰는

데...”라고 말하는 것은 돈만 많이 있는 소위 졸부들의 경우일 뿐이다. 그래도 그 사회의 지도층에 근접하다면 국민들한테는 소비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민들 한 달 생활비 만큼의 액수를 그들이 걸값 취급할 때 서민들은 한뼘씩 어깨의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다. 그들에게 책임있는 소비를 부탁한다. 남대철 사회부장 eniac97@cakra.dongguk.ac.kr

소나기

불법도·감청



△나는 밤마다 옆방을 도·감청 한다. △도청: 경북도청 안감으로 유지하자. 감청: 지는 핸드폰이 없어서 모르겠어. △내가 들켰다는데 너희들 무슨 상관이야? △전국민이 다 들을 수 있게 정치인의 모든 전화기에 도청장치를...

△나는 지난밤에 니가 한일을 다 들었지. △낯말은 도청해서 듣고 낯말은 감청해서 듣는다. △가끔 혼선시켜 들리는 다른 통화내용 하나도 재미없다.

△도청!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수도 있습니다. △도청 대신 블랙카메라 설치할까? △도청장치는 도둑에게...

△도청장치어 나에게 오라. △불법도·감청이 음질이 최고라는데... △남이 하지 말라는 거는 잘하니. △청개구리가 따로 없구나. △음질 100%(?) 만족100%(?) △있잖아요. 비밀이예요~ △드디어...미친내...우리는 해 냈다. △그녀의 속삭임은 최고였다. △사생활 침해법으로 사형이다! △당신의 뒤에 그 늑이 있다. △다쳐! 함부러 발설하지마~ △우리는 도청으로 통한다. △이것이 과학의 힘? △세계속의 한국! 도청은 세계적 규모로~ 클린턴은 지금 뭘하고 있나? △비밀은 없어~

△도청은 죄가 아니다. -귀머거리 대표 △도·감청은 불법인데 법 잘지키라고 해이하는 정부가 도·감청한 것은 무슨 뜻? △너무나 기술 좋은 우리의 정부, 그 하수인 국정원! 이것들이! 파이팅이다! △후후 내친구의 이름은 도청이다. -물·반 △도청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감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말조심. △대한민국도 이제는 예너미 오브 스테이트 같은 영화를 찍어도 될 듯... △지(정권)가 하면 합법이고, 심부름센터(국민)가 하면 불법.

TEL: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하이라이스, 동태매운탕, 떡갈비, 소고기국밥, 김치볶음밥, 오징어탕수, 제육덮밥, 비빔밥, 후라이드치킨, 카레소스).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생선가스, 콩나물국밥, 새우볶음밥, 비빔밥, 불고기덮밥, 카레라이스, 닭갈비, 순대야채볶음, 미트볼덮밥, 오징어숙회덮밥).

“일본에 대한 이성적 사고 필요한 때”

지난 학기 일어일본과 전공과목인 '고급일본어'강의를 맡았을 때 재일교포 학생 두명이 수업에 들어왔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그들의 존재는 솔직히 말해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매우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최근 일본문화의 전면개방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는 결코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란 부정적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됐는지도 모른다. 한일간의 축구경기가 대표적인 예다. 일본 유학중이던 97년경 도쿄에서 열린 한일 월드컵최종예선전을 관람한 적이 있다. 경기 시작전부터 양쪽 응원석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처음 일본 축구경기장을 찾았던 나는 열렬적인 애국자로 변

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란 통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일수 있다 그 생각하면서도 일본과의 경기에선 어느새 이성을 잃고 국가와 민족만을 위한 애국자가 된 것이다.

확실히 일본은 우리에게 특별히 부정적인 존재이다. IMF위기에 대응하는 과정도 그렇다. 모두들 위기극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일본자본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미국은, 유럽은 좋지만 일본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당연한 국민 감정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그저 손해만 볼 뿐이다.

결국 우리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맞서 싸우는 '경기장속 사고체계' 안에 자신의 존재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가끔은 경기장 밖에서 두 나라를 바라보는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다. 이 병진

“수업시간에 예의를 지키는 학생이 되자”

2학기 들어 1학기보다 수업분위기가 더 안좋아진 것 같다. 작은 교실은 예외일지 몰라도 경주캠 원호관의 209호와 같은 큰 강의실에서는 수업시간인지 자습시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다. 수업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폰도 제대로 꺼주지 않아 요란하게 울리며 심지어 출석만 하고 가버리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강의의 하시는 교수님도 짜증나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정말 여기가 대학교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며 지식을 쌓아 사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자기들은 지성인이러워 하면서 학교에 대한 권리는 찾을려고 하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것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학우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수업시간만은 제발 예의를 갖춰 다른 학우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광배(자연과학대 수학교육학과)

경주캠 학생식당, 대대적인 개선 시급

내가 동국대와 함께 생활 할지 1년이 되어간다. 자취를 하고있는 나로서는 매 끼를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내 입맛에 딱맞는 음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타지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만큼은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즉, 좀더 나은 환경에서 철저한 위생상태와 저렴한 가격이 맞고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회관 식당을 보면 음식의 가격이 맛이나 질에 비해 비싼 편이고, 서울캠과 비교해 경주캠은 메뉴의 종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식 반찬의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불만에 찬 학우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과 진흥관 식당은 이용하는 학생수에 비해 식당공간이 너무 협소해 이용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위생상태 또한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우리 온방골의 급식상태에서 학생회관 식당의 의견 제

시판에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학우들의 욕구에 학교가 따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없는 불평을 하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온방골의 한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학교 급식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현영(상경대 관광경영학부)



“교수님, 야외수업 해요”하는 소리에 모두들 캠퍼스 잔디위에 앉았다. 온방골에 그윽한 가을향기를 몸으로 느끼면서 하는 공부가 근사하기만 하다.

동문교사 제안 ‘경주캠 발전안’

경쟁력있는 전공 신·증설, 지역사회와 연계 필요

독아원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고 현재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맡고 있는 현직 교사이다. 우리 동대는 당장 다가올 진학 학생수의 자연 감소와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각 대학들의 신입생 유지 전략과 그들 대학들이 보여주는 자체적인 변화들은 실로 동국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그들 대학들은 이미 팔목할 만큼 변신에 성공하고 있으나, 동국의 모습은 그러한 상황에 비해 더딘 편이라 실속보다는 외양에만 치우쳐 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에 경주캠의 문제점을 들어 보겠다. 첫째,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는 학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학과 구조 조정은 분명 엄청난게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좁은 안다. 한·의학과나 컴퓨터정보통신부 등은 분명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곳이다. 그러나 몇몇 학과를 제외하면 별로 가고 싶은 학과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 의미있고 가치로운 학문임에는 분명하지만 진학생의 입장에서 그

렇다는 이야기다. 또 행정학과는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해 경찰학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몇년 전부터 인근 대학들이 경찰학부를 신설하여 인문계열에서 최고 평균점의 효과 학과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는 지역사 및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의가 끝나기가 바쁘게 가방을 싸서 서울로 떠나는 교수님들은 더이상 경주캠퍼스에는 필요치 않다. 지금 교육은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한다. 거주지를 서울로 두고 있는 교수님들, 학생과 같이 하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학생과 호흡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교육은 봉사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본인은 동국의 캠퍼스를 떠나 다른 두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마쳤다. 각 대학들 간의 특성은 물론이고 교육 마인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 당시 본교의 몇몇 대학행정직원들이 보여 주었던 태도는 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학생들에 대한 봉사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비아냥 거리가조차 하는 교직원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단지 근무시간이 조금 끝났다는 것으로 통명스럽게 대우하고 큰소리는 불친절. 자신은 서울캠을 나왔기 때문에 우월의식에서 학생들을 무시하는 언사를 함부로 하는 태도가 지금은 변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동문. 이러한 직원은 분명 구조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님들도 자신이 동문이라는 동질성만 강조할 뿐 몸은 서울에 가 계신 교수님들은 오히려 학교 발전에 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로부터 '사제동행'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아픔을 들어 주고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교수님이 진정 동국에 필요한 우리의 스승이다.

또 경주캠은 서울캠의 발전이 동국의 발전이라는 논리에서 깨어나야한다. 위기는 지방캠퍼스부터 찾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종합학교, 주인이 없는 학교, 그래서 근무하기가 편한 학교라는 생각은 변화야 한다. 그래야만 진학시키고 싶은 대학, 미래의 비전이 있는 대학이 될 것이다. 동문교사 (duckup@kornet.net)



동학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정화야! 첫방 축하하고 계속 열심히 해. -겸쟁이 씨니 △DUBS 41기들 첫방 축하한다. 그러나 금요일날 각오하자 -Ferza Corea

열심히 합니다. △국교과 축전준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국교 98 △국어교육과 30주년 기념 축전을 멋지게 준비한 정현이 형, 오정달, 99들, 학회장. 그리고 축준위, 김부장님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축준위, 김부장님을 고생했어요. -국교장 축하합니다. △석철아! 창호야! 이제 너네는 나의 품

을 떠났구나.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힘든일 있으면 도와주마 화이팅! -진우 △국교인의 자랑 태광오빠, 진완오빠, 선영언니 파이팅! 그리고... △공법학회 모교지킴이다. 토, 일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을 젊음의 열기로 불태우자. -짱 △사회학과 일일호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 △상록원 양식 식단중 단무지, 무편지, 오이지, 요구르트 빼고 500원 깎아주세요. △학교 건물내에서는 드디어 금연하게 되었습니다. -동약인 △승! 현아와 영원해라. -김백 △두호야! 슬직히 너 정말 멋지다!!! -자과부 이무개가 △11월5일 영일 덕원 동문회합니다. 안나오면 그만 살고 싶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부회장

온방골 축하합니다. △조준호 대위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97학번 누군기가 △불·동과에 아동미술 동아리가 탄생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의 100일을 축하해 주세요. 꼭!! 축 100일!! -겨울이가 △11월1일 인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11월이 되길... -희아가 △11월2일 우리 동인의 짱 잡미서 언니의 별쓰데이... 축!!! -동국연극회 20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장 화이팅 Newsweek 동아리 곡 발표회(11월4일~5일)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네요. -인기부장

△불교미술학과 동기들, 졸업작품마무리 작업하느라 정말 수고많았다. P.S글구 조소, 서양화 졸업작품전 축하해. -해.9X 알립니다. △뼈를깎는 전수를 견디어낸 고전극 연구회 탈패 21기들의 화이팅을 기대해주세요. -탈패 학습부장 △아메바! 공연준비 잘하고 준수와도 너무 티내지 말기! -행정 독목이 그리고... △기전 성님 다치셔서 어떻합니까?(빠에는 회가 최고예요) 말년에 조심하세요. -화랑선무부 15기 일동 △건설! 자주적 학생회 완수! 조국통일철패! 국가보안법 쟁취! 사상의 자유. -범하늘의 별 △조경학과 여행영상 모임 '가람과 뒤' 여행발표회가 있어요. 많이 와보셔! -우기 △호쌤이 11월4일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보러 많이 많이 오세요.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nd Menu items (유부림장국, 김치볶음밥, 감자양파국, 생선가스, 근대국, 오징어덮밥, 김치국, 돈까스, 건새우이육국, 카레라이스, 콩나물우거지국, 볶음음밥, 미역국, 돈육덮밥).